

# “건설재해 뿌리 뽑읍시다”

## 건설현장 중대재해 완전추방선포식 지난 9일 개최

취재 | 임동희 기자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완전추방 선포식’이 지난 4월 9일 서울디지털단지 운동장에서 각계 안전인사 및 안전관련 종사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은 관악·동작 및 구로·금천구 안전관리자 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 본부가 후원한 행사로,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예방하여 재해 없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오후 4시부터 시작,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 정용택 서울관악지청장, 성기철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장 등 관내의 안전관련 주요 인사를 비롯해 관내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 공사팀장, 근로자, 관내 노동조합대표, 노동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날이 관내 건설분야 최고의 안전결의 대회였던 만큼 각종 언론사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행사는 개회사부터 시작해 각계의 주요 인사들의 대회사 및 격려사, 건설재해예방결의문 낭독, 안전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외빈들은 이날 그동안의 건설안전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건설현장에서만큼은 재해없는 한 해를 만들자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자신의 안전은 미리 챙기고, 동료들의 안전까지 챙겨야 한다는 안전신념이 이날 다시 한 번 참가자들의 머릿속에 새겨졌다.

격려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최원영 의장은 “재해는 가족의

행복을 빼앗고, 시간과 물질의 엄청난 낭비를 가져온다.”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항상 안전을 확인하고, 살피고, 원칙을 지키면서 재해를 막자. 그리고 예산낭비를 줄여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외쳤다.

내·외빈들의 대회사 및 축사 후에는 안전관련자들의 건설현장 무재해를 염원하는 결의문과 안전구호가 구로디지털운동장 곳곳에 울려 퍼졌다. 이런 모습에서는 이날 행사가 단순히 모임에 그치지 않고, 건설현장의 재해를 뿌리뽑자는 각계의 엄숙한 결의가 모여진 자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은 “이날 선포식은 관내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완전 추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건설안전을 위한 절박하고 결연한 의지 모아

이날 행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해자 추세를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었다.

건설업의 재해자수는 최근 3년간 06년 17,955명, 07년 19,050명, 08년 20,473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사망자수는 06년 631명, 07년 630명, 08년 669명 등으로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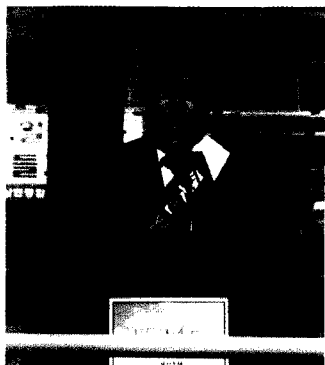
이러한 위기감 속에 진행된 이날 선포식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하고 무재해를 염원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것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이날 모인 안전관련 종사자들의 모습에서는 결연함과 진지함이 묻어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모임에서는 위기감 속에서 안전을 사수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절박함까지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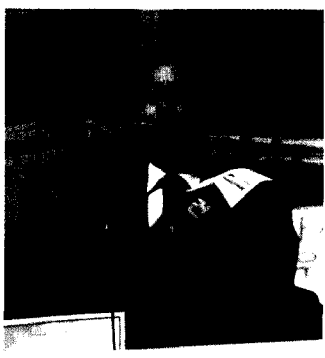
### 진정한 안전업종으로 거듭나길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날 정용택 서울관악지청장이 대화사 도중 말한 문구다.

위의 말을 되새겨볼 때, 모든 작업의 최우선 목표는 건강과 안전이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건설현장의 재해를 뿌리째 뽑고, 건설업이 진정한 안전업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장익성 서울지방노동청장



정용택 서울관악지청장

지난 한 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성 사망재해자수만 612명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건설현장 사망재해자수가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대비했다면 예방이 가능했던 재해라는 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재해예방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100%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는 스스로가 안전을 챙기고, 동료들이 안전을 챙겨주고, 현장소장을 비롯한 관리자가 안전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퇴근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여러분이 가져가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은 근로자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년도 산업재해가 증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부실기업의 퇴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해볼 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지 않을까 걱정이 큼니다.

현장소장, 안전관리사, 근로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건설업 관계자 여러분들이 금년도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은 그 분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장근로자들의 고귀한 생명을 함께 지켜 나가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는 매우 가슴 벅찬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선진산업안전문화를 가꾸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